

# OPINION

2025년 2월 4일 화요일

## 광남시론

### 분단 80년, 한반도 통일시대는 오는가

####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올해는 한반도가 외세에 의해 분단 된지 80년, 대한민국이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지 120년 되는 해이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지난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가 대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시대 한민족의 화두는 통일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고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세계 전략과 편승해 한반도 통일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통일교육위원으로서 통일교육을 실시 할때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의 등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즐거이 강조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고, 이런 두가지 요인들이 한반도 통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중국 견제이다. 중국은 북한을 위성국가화 하여 동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동해안 확보는 중국이 당장 북극항로를 이용 하기 위해 중차대한 문제로 대만통일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고 원산에 트럼프 호텔을 건설한다면 북한이 친미국국가 되어 중국의 북극항로 진출계획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의 열망이다. 북한을 비핵화시켜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만들고 남북경제협

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유도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평화의 한반도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 받는다.

아울러 비극적인 러·우전쟁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동전쟁의 종전을 위해 노력하면 노벨 평화상 수상이 거의 확실할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지난해 11월말 '학생평화통일체험캠프' 인솔차 휴전선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방문했다. 고성엔 전 지역이 아름다운 동해안과 접해있고 멀리서 웅장한 금강산 일만이천봉과 설악산의 자태가 보이고 과거 김일성이 사육한 '김일성 별장'과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불과 30km를 북쪽으로 더가면 김정은의 고향이자 현재, 북한이 야심차게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중인 원산김마지구가 나온다. 망원경으로 보니 어렵듯이 멀리서 마식령스키장과 원산만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원산김마지구'를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원산김마지구'는 2014년 6월 개발계획이 발표돼 2016년 7월 착공했고 2018년 9월 완공 목표였다.

하지만 공적자질과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공사중단 등으로 완공시점이 계속 늦춰져 왔다. 김정은은 이곳의 호텔들과 시설을 돌아보고 금강산 지구와 함께 김마지구를 잘 꾸려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싱가포르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원산지구 카지노호텔 사업 진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원산 해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것 보다 세계 최고 호텔을 지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해운을 버린다면 원산에 최고의 트럼프 호텔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로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그룹을 성공시킨 '셸던 아델슨'(Sheldon Adelson)은 원산에 카지노 개발을 검토한 바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같은해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경제지원과 원산김마지구계획안을 비핵화 반대급부로 제시했으나 북한은 제재 완화 없는 일방적 약속에 불쾌하며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필자는 북한의 원산김마지구 개발을 비상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러·우전쟁에 많은 군인들을 파병해 많은 인명들이 전사하여 민심이 들끓는 시점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김정은이 원산 해변 시설들이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도 품위있게 주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금년 6월이후 트럼프와 세계적인 만남을 원산으로 유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백악관이 당초 북핵동결에서 완전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쉽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 되었으나 대한민국의 정치리더십이 전례없이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북·미대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하여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통일은 아직 깜깜한 밤이지만 분단 80년을 맞이하면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시대는 점차 성큼 성큼 오고 있다.

#### 사설

### 광주·전남 상가 5곳 중 1곳이 공실이라니

광주·전남지역 오피스 5곳 중 1곳이 공실이라고 한다. 극심한 상가 불황의 끝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의 오피스 공실률은 19.9%로 전년 대비 3.9%p 늘었다.

전남은 전년 대비 4.7%p 줄어든 20.9%로 집계됐다. 양 지역 모두 오피스 5곳 중 1곳은 비어있는 셈이다.

또 다른 상업용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광주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6.0%, 소규모 상가는 6.9%로 전년과 같았고, 집합 상가는 1.1%p 상승한 7.5%였다.

전남의 경우 중대형 상가의 공실은 12.6%, 소규모 상가는 7.5%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보험세다. 집합 상가는 전년 대비 0.8%p 줄어든 24.0%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의 상업용부동산 평균 공실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역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실률이 높은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임차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 광주의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66% 하락, m² 당 5500원을 기록했다.

m² 당 중대형 상가는 전년 대비 0.29% 떨어져 2만1800원, 소규모 상가는 0.64% 하락해 1만6900원이었다. 집합 상가는 전년 대비 0.11% 하락해 m² 당 2만1300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가 전년 대비 각각 0.64%, 0.57%, 0.53%, 0.50% 떨어져 m²당 4600원, 1만2800원, 1만1000원, 1만5000원이었다.

임대수요가 줄면서 권리금 유지비율도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떨어졌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을 억누르고 있다. 임대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전남 농수산물 수출 1조원 시대 열었다

친환경을 앞세운 전남의 농수산물품이 K-푸드 열풍을 타고 훨훨 날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7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자, 전국 농수산물 수출 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전남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한화로 1조1388억원에 달한다. 전남 농수산물 수출 1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수출은 김이 주도하고 있다. 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하며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주요 김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 수출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유럽,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전남 김의 품질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오리쌀 역시 3700만달러의 수출액 73%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수산물품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

나라별로는 전남의 수출 주요국인 일본(19.5%), 미국(33.8%), 중국(16.7%)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으며,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각각 2.7%, 5.2% 증가했다. 이들 시장은 김, 전복, 배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전남 농수산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남도는 수출 물류비 폐지의 공백을 메운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지자체 최초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관 개설, 해외 사설판매장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판촉 행사 지원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수출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남의 먹거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려 꾸준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에 매진해온 결과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다.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는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 전남의 농축수산물에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기고

#### 최병용

전남도의원



### 나눔과 연대, 그래도 살만한 세상

뜻하게 만들었고 오지 못한 국민들은 전국의 분향소와 온라인 추모 공간을 통해 슬픔을 나누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남도의회도 사고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유가족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그 아픔을 나누고자 했다.

유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파악하고, 도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사고 수습 후 유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따뜻한 나눔과 연대라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히 감동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촉발되는 나눔과 연대를 넘어 일상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우리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부와 나눔의 참여가 줄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골목상권은 물론이고 먹자골목의 상가들에서도 '임대'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헌혈 인구가 연간 기부가 크게 줄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기부와 사회공헌 플랫폼의 기부금 감소로 사회적 약자들

위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로 넘어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의미해 더욱 우려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방법은 있다.

디지털 기부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상생 기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 혜택과 홍보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부자와 기부받는 이들 간의 소통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손을 맞잡는 따뜻한 마음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과 관심을 이 어딘가 모인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키워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일상속에서 나눔과 연대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힘들수록 서로를 아끼고 돕는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말이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더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

#### 취재수첩

### 문화전당, 새로운 미래 10년 준비해야

#### 김다경

문화체육부 기자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해 누적 방문객 수 1900만여명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위상을 확인했다.

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지난 2008년 착공, 6년여의 공사 끝에 2015년 개관했다. 옛 전남도청 일대에 지상 2층~지하 4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주요시설로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이 있다.

올해는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10주년 사업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러다'를 앞세운 다양한 전시, 공연 등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디어아트와 신체운동, 놀이를 융합한 '미래운동회', 이이남 작가의 신작을 볼 수 있는 '지역작가 초대전'과 사운드 아티스트 로지 이케다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거장전', 인류세와 자본세 이론을 통해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대규모 전시 '봄의 선언' 등이 준비 중이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레퍼

토리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지난해 이어 오는 5월 다시 무대에 오른다.

미래 1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설립 기조인 민주·평화 정신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은 도청 복원 문제와 맞물려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전당장은 오는 13일 이강현 초대 전당장의 임기 만료로 또다시 공석이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여파로 후속 인사 절차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옛 도청 자리에 세워진 ACC는 설립 당시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제시된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다.

개관 10년을 맞아 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새로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